

무료입니다 - 하나씩 가져가세요.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 이야기: 읽고 색칠하세요.

스물 네 번째 이야기: 씨 뿌리는 사람





씨 뿌리는 사람

마태 복음 13:3-8

예수께서 살던 시대에는 농부들이 씨를 땅에다 뿌림으로 씨를 심었습니다. 농부는 씨들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새들이 와서 얼마큼의 씨들을 먹어 버렸습니다. 그런 씨들은 새들이 먹었으니까 자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씨들은 바위에 떨어져서 자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씨들은 잡초들이 많은 곳에 떨어져서 같이 자랐는데 이런 잡초들이 좋은 씨들을 못 자라게 막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잘 자라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좋은 땅에서라야만 씨가 잘 자라 큰 나무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새가 좋은 씨를 먹은 것처럼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게 해서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나무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잡초나 가시 나무가 좋은 나무를 막아 못 자라게 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들이 꽂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게 해서 안 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씨가 좋은 땅에 심어져서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

주 예수님, 우리로 당신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기쁘게 들으며 배우게 하소서.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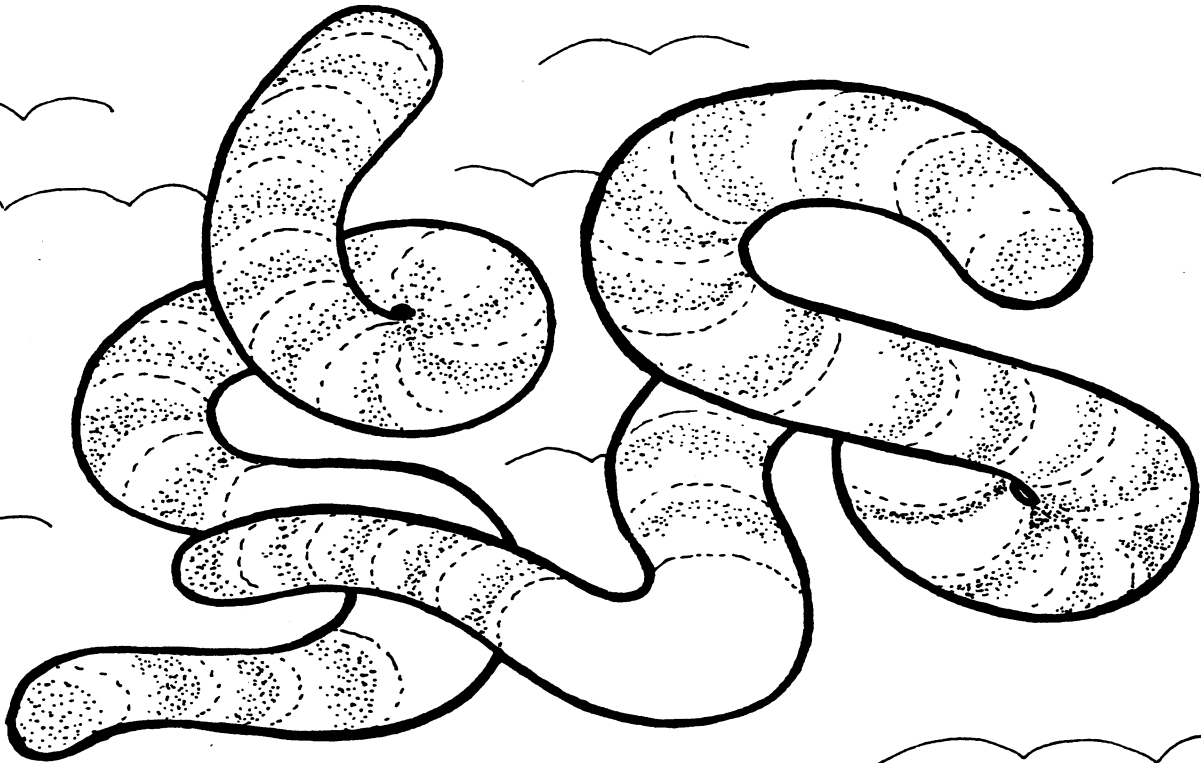
초등부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 귀절 (외우세요)

요한 복음 8:47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성경 속에 나오는 동물들

지렁이



지렁이들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흙이 기름지게 하고 또 나무들을 잘 자라게 합니다. 죽은 것들을 먹어서 땅을 깨끗하게 합니다. 지렁이들은 이런 일들을 하면서 흙 속을 돌아다닙니다.

비가 온 뒤에 길가에 나와 있는 지렁이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대개 이런 것들은 죽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흙 속에 있어야 사는데 잘못해서 길 위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 배운 교훈과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들을 때, 들은 것에 대해 잘 생각해 보고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는 것을 매일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교훈을 무시해 버리면 길을 잘못 들었던 지렁이처럼 될 지도 모릅니다.



시편 92:12-15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늘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